

# 5월을 보내며 떠올린 몇 가지 생각들



## 이홍재의 세상만사

주필

오월 어느 날, 그 하루 무섭던 날, 떨어  
져 누운 꽃잎마저 눈물짓는데. 뻗쳐오르  
던 우리의 보람도 서운케 무너지고 말았  
으니. 아, 38년 전 그날을 어찌 잊을 수 있  
으랴.

또다시 5월을 떠나보낸다. 벌써 서른여  
덟 번째다. 꽃들이 하나둘 지고 있다. 봄  
날이 간다. "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닦하  
라." 그거야 경지에 오른 시인의 말일 뿐.  
때아닌 낙화(落花)의 애절함을 겪었던  
우리는 오늘도 '바람'을 찾아 헤맨다.

삼백여살 날 하냥 슬픔에 젖어 살아 온  
세월. 살아남은 우리는 한없는 부끄러움  
속에서도 그 모진 세월을 견뎌왔다. 다만  
가슴속에 비연(悲戀) 하나는 남겨 두었  
다. 꼭 찾아내리라. 순한 생명을 앗아간  
그 광풍(狂風)의 근원을 찾아야 하리라.  
무고한 광주 시민을 확실한 원흉(元兇)

을 꼭 찾아 처단해야 하리라.  
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. 발표  
명령자는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 
있다. 그래도 그가 누구인지도 우리 모두  
다 안다. 전두환. 다만 우리는 확인하고  
싶을 뿐이다. 그가 뒤늦게나마 사인하고  
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다.  
돌이켜 보건대 당시 공수부대의 만행  
은 끔찍했다. 맨몸의 시민들을 곤봉으로  
내리치고 날선 대검으로 마구 찌르고. 이  
들의 만행을 피해 골목길로 숨어들면, 그  
아비규환(阿鼻叫喚) 속에서도 노인들의  
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. "이것이 먼 일  
이당가. 6·25 때도 이러지는 않았는데..."

### 김중배는 왜 중도 포기했나

6·25 하면 '부역'이란 단어가 머릿속에  
'연관 검색어'로 자동 생성된다. 그 당시  
적군에 부역한 사람들은 가혹한 테러를  
당하거나 '즉결 처분' 형식으로 목숨을 잃  
어 갔다. '부역(附逆)'이란 역적(逆)에  
게 붙었다(附)는 뜻이다. '반역 집단'을  
돕는 행위나 그런 행위를 한 사람'을 말한  
다. 원래는 왕조시대 왕권에 대항하는 행  
위 등을 지칭했는데, 6·25전쟁 때 널리 쓰

인 이후 우리의 뇌에 무시무시한 단어로  
각인됐다. 부역자는 정의의 외면하고 불  
의에 기댄 사람들이다. 박정희·전두환 등  
독재 정권을 창출하고 지탱하는 데 적극  
협력했던 이들도 부역의 오명을 피할 수  
없었다.

어찌 됐든 지금도 '부역'이란 말은 '적  
에게 붙어먹은 세력'이란 뜻으로 자주 사  
용된다. 최근만 해도 광주시장 선거에 출  
마한 이용섭(67) 후보에 대한 '군사정권  
부역' 논란이 있었다. 특히 선거 초반 경  
선에 나섰던 최영호 전 남구정장은 "이 후  
보가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5년 12월부  
터 청와대 사정행정관으로 근무했다"며  
"결국엔 본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했을 텐  
데, 현재 5·18과 광주정신에 비춰 봤을 때  
정체성에 적합한지, 시대정신에 맞는지  
의문이 든다"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.

고은(高銀) 시인의 '만인보(萬人譜)  
에 등장하는 '5·18 사형수' 김중배  
(64) 전 국회의원도 얼마 전 이에 가세했  
다. 민주평화당 간판으로 광주시장 도전  
에 나선 그는, "전두환 정권에 협력했던  
자의 사진이 광주 시청에 걸리지 않도록  
하겠다"며 기명을 토했다. 그랬던 그가 돌  
연 출마를 포기했다. 그는 왜 그만두었  
까. 아마도 당선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컸

을 것이다. 전폭 지원을 약속하며 출마를  
권유했던 당 지도부에 대한 어떤 섭섭함  
도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 모른다.

하지만 그가 지인에게 밝힌 출마 포기  
의 변(辯)은 이랬다. 당선보다는 낙선 가  
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'5·18사형수 대 전  
두환 비서'의 대결이라는 구도가 적지 않  
은 부담이 됐다는 것이다. 당에서야 그러  
한 구도도 갈 경우 승산이 있다고 봤지만,  
선거에서 패할 경우 '5·18 세력의 패배'  
로 인식되는 것이 속도록 싫었다는 것  
이다. 그럴 경우 외부에서 광주 사람들을  
어떻게 볼 것인가 혹은 광주정신이 퇴색  
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도 우려하지 않  
을 수 없었다고 했다.

여하튼 그의 중도 하자로 광주 시장 선  
거는 다시 미팅할 구도가 되고 말았다. 강  
력한 경쟁자가 없다 보니 벌써부터 그들  
사이에서는 이 후보의 '전국 최다 득표'를  
기대하고 있다는 말도 들려온다. 김치국  
을 마시든 말든 그거야 일단 결과를 지켜  
보기로 하자.

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 
있다. 이용섭 후보는 과연 '광주의 정체성'  
에 적합한 인물일까. 이에 대해서는 아  
무래도 고개를 가로짓는 시민들이 많았  
다. 그동안 광주일보가 세간의 오해를 무

릅쓰고, '광주 정신'과 '광주의 정체성'  
그리고 '후보들의 역사관'을 강조해 온 것  
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.

물론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 비서관  
을 했다는 사실만을 놓고 '전두환 부역  
자'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 
시각이 있을 수 있다. 맞는 말이다. '직업  
공무원(4급 행정관)으로서 인사 발령에  
따라 그곳에서 근무를 했을 뿐'이라면 그  
만일 테니까. 이 후보 자신도 "비서 시절  
청렴도 제고 업무를 했을 뿐이며 공직에  
있는 동안 5·18에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하  
지 않았다"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.

### '광주시장 이용섭' 팬클럽을까

그래도 아쉬움은 남는다. 아무리 김대  
중·노무현 정부에서 장관 등을 거처며 검  
증을 통과했다 하더라도, 적어도 '민주성  
지' 광주에서 시장을 하려 든다면 '사죄'  
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'유감 표명'  
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. "당시 30대 초반  
의 젊은 나이여서 잘 몰랐던 데다, 직업공  
무원이어서 인사 발령을 거부할 수 없었  
습니다.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광주학살의  
주범 전두환 밑에서 일한 것에 대해 죄송  
스럽게 생각합니다. 앞으로 광주시장이

되어 그 빛을 갠겠습니다." 그로부터 이런  
정도의 입장 표명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  
일까?

당선이 유력하다 보니 '수석도 아닌 일  
개 행정관을 지낸 사실을 들어 부역으로  
모는 것은 억지'라며 최근 그의 편을 드는  
이들이 늘어가고 있다. 그러나 많은 광주  
시민이 피를 흘리며 죽어간 지 불과 몇 년  
도 안 되어 '전두환 비서'로 근무했다면,  
그 누구라도 그의 역사관에 대해 '합리적  
인 의심'을 품을 만하지 않은가.

그도 그럴 것이 대조적으로 그와는 아  
주 판판이었던 이런 사람도 있었으니까.  
그가 누구나 하면, 1978년 사법연수원을  
3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던 인  
물이다. 따라서 당시 판사나 검사가 될 것  
이라고 모두가 예상했으나 그는 그렇게  
하지 않았다. 왜? 연수원을 마치고 공군  
법무관으로 복무하던 중 5·18광주항쟁  
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. 그는 학살의 주  
범인 전두환 정권하에서 법관으로 임용  
되는 것을 거부하고 변호사의 길을 택했  
다. 이 예기의 주인공은 천정배(64) 의  
원. 그의 나이 20대 중반이었던 때다.

이용섭과 천정배. 두 사람은 비슷한 나  
이였지만 각자 가는 길은 이처럼 확연히  
달랐다.

## 80세 철학자, 100세 철학자 백수연에서 인생을 생각하다

### 김형석 교수 백수 기념 한국 철학계 원로 간담회 성진기 교수 다녀와



성진기 교수

지난 30일 우리 시대 철학자로 대중의  
사랑을 받는 김형석 교수님의 백수를 기념  
해 마련된 한국 철학계 원로 간담회에 다  
녀왔다. 30명의 교수가 초청됐고, 초청자  
는 김광수 교수(한신대 명예교수) 등 '송촌  
문화모임' 관계자들이었다. 송촌(松村)은  
김형석 교수님의 아호다.

연세대학의 박순영 교수의 사회로 시작  
된 기념행사는, 김교수님의 약사 보고를  
유인물로 대체했고 김형석 선생님의 환영  
사가 이어졌다. 필자는 김 교수께서 백세  
까지 사신 것 자체보다 그 많은 세월을 살  
아오는 동안 겪었을 고난이나 번뇌를 무  
슨 힘으로 이겨 냈을까 궁금했다.  
김교수님은 인사말 처음부터 철학 공부  
의 동행자였고 인간적 친구였던 안병욱,  
김태길 교수와의 일화를 고백처럼 말씀했  
다. 특히 그 두 분과 세상을 뜨기 전에 나눈

대화를 가운데는 죽  
음을 예견한, 또는 죽  
은 뒤의 부탁 같은 내  
용이 있었다. 세상엔  
영혼이 자유롭고 열  
정이 넘친 교수님으  
로 알려져 있지만 인  
사말을 진행하는 동  
안 내내 김교수님은  
기운이 없어 보였고  
말씀 중간 중간 드러내지 않은 고뇌가 문  
어였다. 김교수님은 아끼고 좋아하던 두  
친구를 먼저 떠나보낸 것보다 아픔이 더  
했는지 하나의 이별 얘기는 흐렸다. 가죽  
안 아내의 죽음은 무심한 '얘기꺼리'로 드  
러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.

김교수님은 이번 백수기념 행사를 '송촌  
문화모임'의 출발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.  
이 문화모임은 하나의 철학 공동체의 구상  
이었다. 특히 원로 철학자들이 한국사회에  
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자리를  
소망하는 듯 했다. 그래서 '한국적 상황을  
생각한다'는 주제 하에 30여명의 참석자  
들이 모두 한 말씀들을 했다.



김형석(가운데) 명예교수 백수 축하 간담회가 지난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렸다. 김 교수가 간담회에 앞서 축하 환영사를 하고 있다. <동아일보 제공>

김형석 교수님의 자제인 김성진 교수  
(한림대, 철학)가 1920년대의 그림과 사  
진을 보여주며 철학자가 세상을 기개로 볼  
것인가 마음으로 볼 것인가의 화두를 내  
놓아 참석자들의 주의를 모았다. 이어 고  
안병욱 교수님의 자제(한림대 교수)가 아  
버님 생전의 얘기를 들려주어 인상 깊었

다. 아들이 철학이 뭐냐고 묻자 아버지는  
"죽음의 연습이다"라고 답했다는 철학적  
에피소드가 범상치 않았다.

김교수님은 참석자들에게 두 권의 책을  
선물로 주셨다. '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  
있네'라는 소개 글이 있는 김교수님의 지  
나간 인생론인 '백년을 살아보니, 2016'

와 다가올 인생론인 '남아 있는 시간을 위  
하여, 201'이다. 다 아는 얘기인데, 김교  
수님은 은유하고 은근한 매력의 소유자  
다. 언제 한 번이라도 폭언이, 분노가, 증  
오가 분출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제 같  
은 인상이다. 이런 것들을 소화하고 화해  
하는 인격 수련을 짐작케 한다.

그 옛날 이 땅의 젊은이들의 영혼을 전  
율케 했던 '영원과 사랑의 대화'라는 책은  
지금도 누군가의 서가에 꽂혀 있을 것이  
다. 그리고 "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 
않는다."라는 말은 늙어감 앞에 방황하는  
노인들에게 던진 메시지로 인구에 회자하  
고 있다. 이 말보다 더 귀가 솔깃하는 말  
은, "인생의 황금기는 60~75세"라는 선언  
이다.

김교수님은 시인 윤동주와의 학창시절  
의 각별한 사연을 기억하고 있다. 동시에  
본인의 실존을 위한 신념으로 각인한 듯  
산문선 '남아 있는 시간을 위하여' 속에 술  
화하고 있다. "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
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/ (중간 생략) / 모  
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." 부끄럼 없  
는 인생 살아가기, 모든 허망한 것 앞에서

의연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. 인간이  
'털 없는 원숭이'에 그친다면 슬픈 일이다.  
무의미한 우연을 중차대한 필연으로 변환  
할 줄 모른다면 인간의 삶은 초라할 것이  
다. 여기서 필자는 김교수님과 철학적 공  
감을 가진다.

우리는 장수시대에 살고 있다. 장수를  
버티는 노후를 습득해야 한다. 김교수께  
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지 않고 100세를 이  
겨내었을 것 같지 않다. 늙어 감은 성숙해  
감으로 의미 전환되어야 한다. 노년기를  
황금기라는데 동의한다면 그 황금기를 무  
엇으로 채울 것인가는 노후를 살아야하는  
자들의 몫일 것이다. 필자는 세상과 인간  
과의 '화해'를 황금기에 도모할 생각이다.  
화해는 굴복이 아니며 통 큰 수용이다. 화  
해의 대상은 물론 나 자신을 포함하며 또  
삶의 눈물과도 이루어져야 한다. 그럼으로  
써 우리는 좀 더 건강한 삶을 지향할 것  
같다.

김형석 교수님 같은 인생의 모범자들이  
있어 우리 사회가 인간의 사회로 승화돼  
감을 느낀다. 그래서 한 사회엔 '선생님'이  
필요하다. <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>

**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**

판결문, 공증·공사대금·각서·운송료  
차용증·거래장부·계약서·입금 내역  
녹취등 각종채권상당

▶ 절대 선수금, 출장비용 없음 ◀  
(재산조사비,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)

- 채무자 재산, 신용·주거래은행·차량등 파악
- 실거주지파악가능
-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
-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

▶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◀

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 
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 
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.  
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 
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 
(24시간 상담가능)

**새한신용정보(주)**  
010-6833-1600  
직통전화 062)513-4306

**혈당조절**

식후 혈당 상승억제!!!

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   고시혈 건강기능 식품입니다.   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

식후 2배수식음~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!!!

삼성제약헬스케어(주) 당디펜스(D.Defense)  
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 
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.

**당 디펜스**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

- ▶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한 분
- ▶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
- ▶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
- ▶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
- ▶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

NAVER 유한바이오 백세생활건강 검색

010-3598-7080

**"공장부지 매매" (급 매)**

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-13, 91-3  
■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
■ 대지 14,916.9㎡, 건물 998㎡(H비 구조)  
■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(건물위)  
■ 공장, 창고, 사무실, 사위장, 화장실 시설 구비

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/월 190만원 임대중

◆ 매매가 28억 ◆ (조정가)

**인원산업(주)**  
010-3605-0214  
062) 655-4840

**2018학년도 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**

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
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!!  
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 [주1~2회, PM 7~11시]

-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
  -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
  - 학점인수(30학점)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(無 논문제)
  -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
  -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국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
- 세계화,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 프로그램 제공
  - 창의적 공학설계,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과정 시스템운영
  -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
- 전형일정
 

구 분	일 정
입학원서 작성	2018. 6. 4.(월) ~ 2018. 6. 20.(수) 09:00~18:00
입학원서 접수 (제출서류 포함)	우편 2018. 6. 4.(월) ~ 2018. 6. 20.(수) 09:00~18:00 (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)
합격자 발표	2018. 6. 4.(월) ~ 2018. 6. 20.(수) 09:00~18:00
전 형 일	2018. 7. 3.(화) 10:00~
합격자 발표	2018. 7. 20.(금) 11:00(산업대학원 홈페이지)
- 모집학과
  - 건축공학/기계공학/산업공학/재료공학/전기전자컴퓨터공학/토목공학
  - 화학공학/환경에너지공학/신환경농업학/식품-외식산업학/지역발전자원공학
  - 전자컴퓨터공학(계량학과)
- 문 의
  -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[전화] 062-530-1607 [팩스] 062-530-1942
  - \*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://gsit.jnu.ac.kr/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**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**  
GRADUATE SCHOOL OF INDUSTRY TECHN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